

#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전국 환경부문 우수상 수상

##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노력 높이 평가

포천시가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네 차례 심사를 거쳐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환경부문에서 전국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원장 정세욱)이 주관해 시상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지방의 경쟁력 제고 및 자치경영혁신을 선도해 온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자치단체장을 평가,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포천시는 전국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심사 ▶3차 인터뷰 심사 및 주민만족도 조사 ▶4차 최종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이 결정됐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포천시가 민선 3기 중에 시 승격을 이뤘고 일류의 자치경영이라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환경부문 전국 우수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숲다운 숲 가꾸기’ 현장토론회

## 영북면 산정리 산 169번지 일대 목재생산림 육성 방안 모색

포천시는 지난 26일 영북면 산정리 산169번지에서 2005년도 ‘숲다운 숲 가꾸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종이 다양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생산림을 육성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와 포천시,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 연천군의 산림관계자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 대상지였던 산정리 산 169번지와 757번지 일대 34ha 면적의 산림은 산정호수 상단에 위치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조림목 사이의 우열과 수관경쟁이 심해 숲가꾸기 작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포천시는 토론 대상지의 산림이 향후 잣나무 40%, 낙엽송 35%, 기타활엽수 25%로 구성되도록 하며 우량목을 집중 육성하고 방목, 경합목, 형질불량목, 피압목, 고사목 등을 제거해 나간다는 관리계획을 밝혔다. 또 우량활엽수와 회귀수종, 화목류는 가능한 존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천시는 지난 26일 영북면 산정리 산169번지에서 2005년도 ‘숲다운 숲 가꾸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산림관계자들이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아울러 현재 대상지 1ha당 1천 740 그루의 나무가 있으나 이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640그루를 제거해 ha당 1천100그루가 되도록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산림 관계자들은 ▶대

상지 산림의 주 기능이 생활환경보전립으로 적합한지 ▶도태간벌에 의한 숲가꾸기 사업종이 적합한지 ▶계획된 제거율과 잔존본수가 적정한지 등에 대해 토론했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목회단상

## 誤解(오해)

일상의 삶속에서 잘못된 誤解(오해)로 오는 결과는 너무도 심각하다. 부부간의 이해부족으로 龍鑿(과경)을 맞아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도 보았다.

최근 모 대그림의 兄弟(형제)가 경영권과 재력의 다툼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貶下(궤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형제간에 誤解(오해)에서 온 싸움이 아닌가 한다. 오해는 이렇듯 형제간도 부부도 친구도 증오와 원수로 만든다.

〈삼국지연의〉를 보면 동탁을 암살하려고 하다 이에 실패해 도주한 조조가 진공에게 사로잡히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진공은 조조의 영웅 됴에 탄복해서 자신의 직위를 버리고 그와 같이 도주한다. 이때 여백사의 집이 보인다. 조조는 그 집이 자신의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사람의 집이라고 설명하고 하룻밤을 쉬어 가자고 한다. 조조는 여백사에게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 하곤 그에게 흔쾌히 승낙을 받는다. 여백사는 오랜만에 만난 조조를 대접한다고 술을 구하러 밖에 나가는데 노곤한 몸을 위로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던 조조와 진공.

그런데 그들의 귀에 주방에서 칼을 가는 소리와 함께 하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똥통한 놈부터 죽여야 하나! 날씬한 놈부터 죽여야 하나! 어떻게 죽여야지?” “일단 묶은 다음에 죽여야지. 두 마리 다 죽이자고” 조조는 여백사가 그 일가를



김형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시켜 자신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뒤 관아에 고발하려 갔다고 誤解(오해)한다. 조조만 더 기다려 보자는 진공의 말을 묵살하고 칼을 뽑아 그 일가를 전부 죽인다.

그런데 주방엔 묶여 있는 돼지가 발견되고 자신들의 誤解(오해)임이 알려졌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조조는 진공과 다급히 그곳을 도망치는 길에서 마주친 여백사 또한 훗날의 격정 거리를 제거하기 위해 죽여 버린다. 조조의 잔혹성이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렇듯 오해는 무서운 殺傷(살상)과 파괴를 부른다. 미국의 부시대통령도 오해가 부른 이라크 사태는 보복과 보복으로 인해 살생과 테러가 멈출는지 걱정이 된다.

성서는 이렇게 교훈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마태복음22장29절29절)

문의) 031-532-2489

### 인/터/뷰 사랑바라기 회장 조선너

## “장애인 위한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포천시 내촌면 베어스타운 타워콘도에서 개최된 ‘2005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캠프’를 기획에서 운영까지 담당한 ‘사랑바라기’의 활동이 주목 받고 있다.



조선너 사랑바라기 회장

특히 이번 사랑바라기의 활동은 포천시자원봉사센터의 기획과 운영에 의지해 왔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것이어서 앞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랑바라기는 2003년 포천고등학교에서 태동해, 당시 활동했던 학생들이 대학생이 된 지금 각자의 학업에 정진하며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조선너 회장은 “평상시 자원봉사센터를 모태로 일상적인 지도자 활동을 펼치다 제안을 받고 이번 캠프를 기획했다”며 “지도자의 입장에서 참여한다 기획과 운영을 직접 진행해 보니 미숙한 점이 보여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조선너 회장을 비롯한 사랑바라기 회원들은 평소 특정한 봉사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연스럽게 봉사

를 통한 즐거움을 얻는다며 대학생의 신분을 최대한 활용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앞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선너 회장은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준 자원봉사센터에 감사하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청소년 위주의 캠프를 장애우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폭 수정해 행사를 기획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포천뽕, 지휘관 혁신 워크숍

### 업무에 있어 문제의식·책임의식 가질 것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배)는 지난 22일 경찰서 혁신 회의실에서 각과·계장, 지구대장, 특수파출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지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능별 당면 현안사

항 및 혁신업무사항을 각 과장이 전파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김영배 서장은 지난 21일 지방청도내 지휘관 회의에 따른 업무사항을 전달하고, 경찰의 당면 최우선작업의 중시과제인 수사권조정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김 서장은 수사권조정과정의 가장 중심은 국민을 위한 입장에서 수사권 조정이 되어 함을 강조하면서, 건강하고 밝은 미래의 조직을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맡은바 분야에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업무자세를 당부했다.

이어 매사에 문제의식·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밝은 포천 만들기에 다짐을 당부했다. 워크숍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1개조 5명씩 순환을 실시하고 있다. 일동면에서는 공영주차장 2층, 일동초등학교, 산책로 공터 등이 집중 순찰 구간이다. 일동면자율방범대는 순찰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교통정리 및 질서유지 봉사활동, 길거리 위험물 및 오물제거 등 활동영역은 제한이 없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탐방 우리지역 지킴이-지역방범대 ㉓ 일동면자율방범대 대장 오준교

## 지속적인 방법활동과 봉사 통한 역량 강화

일동면자율방범대(대장 오준교)는 1991년도에 방범대가 구성돼, 현재 지난 4월 1일자로 일동지구대에서 분리된 일동파출소와 공조해 야간 방법활동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의 순찰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 6월 일동면자율방범대장으로 취임해 1번의 임기를 연임해 4년동안 일동면자율방범대를 이끌고 있는 오준교(38) 대장은 지역방범대의 활동상을 들

었다. 일동면 자율방범대는 오준교 대장을 비롯해 남건우 감사, 손경석·나진수·송정현 부대장, 이순

학 총무를 포함 35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방범대의 주요 순찰 구역은 일동의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학교 주변과 주택가, 인삼밭 등이고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1개조 5명씩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일동면에서는 공영주차장 2층, 일동초등학교, 산책로 공터 등이 집중 순찰 구간이다.

일동면자율방범대는 순찰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교통정리 및 질서유지 봉사활동, 길거리 위험물 및 오물제거 등 활동영역은 제한이 없다.

오 대장은 “요즘은 청소년들이 과격해져 지역 어른들이 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청소년이 과격하게 변하게 된 데는 청소년들의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며 청소년들의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동면자율방범대의 운영비는 4개월마다 시의 지원을 통해 받고 있는 89만원과 회원들의 월회비 5천원, 2명분의 산불감시비용으로 차량유지와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이 된다.

오 회장은 “대원들의 95%가 직장으로 순찰 및 방법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으나

투철한 책임의식으로 방법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대원들의 방법 및 봉사활동과 대비 운영비가 비현실적이다”고 밝혀 운영비의 현실화에 대해 주장했다.

일동면자율방범대의 경우 차량 구입은 생활안전협의회에서 지원해 줬고, 차량관리비와 유지비용을 운영비에서 부담하고 있다.

한편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일동면자율방범대에 생활안전협의회는 운영비로 25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대원들이 매우 고무돼 있다.

오 회장은 “자율방범대의 활동 강화와 지역사회 봉사 역량을 강



오준교 일동면자율방범대 대장

화하기 위해 금년 가을 체계적수지 주변 정화활동과 주택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등 지역사회 청결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귀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 차별화된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식품”

###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대표 文宰吉



### 생산품목

- 영동국수·소면
- 영동메밀·칼국수
- 곰표국수·소면
- 곰표칼국수
- 정훈우동·스파게티
- 차별화된 술잎·칩·쭈국수

■본사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전화 : 031-535-5773 ■팩스 : 031-534-13